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

[1~2] 다음은 교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진행된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생활하오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복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은 여름에 땀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넥타이까지 매면 정말 답답합니다. 또 우리 학교 교복은 단추를 채우는 셔츠 스타일로 되어 있어 세탁 후 다림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옷 전체를 다림질하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칼라와 소매 부분만 다림질해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잠시 멈추었다가 웃으며) 그렇다고요?

교복이 편한가?		단위(명)	대안이 필요한가?		단위(명)
편함	불편		불필요	필요	
25	75		16	84	

(표를 제시하며) 보이시나요? 제가 만나 본 많은 학우들이 교복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잠시 멈추었다가) 그래서 저는 생활복을 제안합니다. 생활복은 땀을 잘 흡수하고 활동하기 편해서 실용성이 높습니다. 또 세탁을 하더라도 다림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을 입는다면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생활복에는 색깔이나 무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활복은 교복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근의 많은 학교들이 이미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할 때 우리 학교도 더 이상 생활복 도입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화제: 생활복 제안

청중: 1, 2, 3학년 모두

발표 전략

- 내가 느꼈던 불편함을 솔직하게 언급해서 청중들의 공감을 유도함. ①
-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시각 자료로 제시함. ②
- 생활복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함. ③
- 교복의 문제점을 먼저 제시한 후 대안을 제시함. ④

발표의 상황: 방송실 스튜디오(카메라로 중계방송)

- 청중들의 대답을 직접 듣는 것처럼 행동함. ⑤

2. 다음은 발표가 있는 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생들의 반응이다. 댓글을 참고하여 발표자가 생활복 도입 찬반 토론회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생활복 도입 제안!

편하고 예쁜 생활복 함께 입어요.

↳ 찬성! 3학년은 교복이 작아졌어요.

lee1995

↳ 1학년은 교복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새내기

↳ 적극 찬성! 생활복을 채택한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생활복이 좋다고 해요.

모범생

↳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비싸면 사기가 좀 꺼려져요.

Steve_곽s

↳ 싸게 살 방법 없나요?

알뜰녀

↳ 이걸 아니죠. 교복은 불편하더라도 단정하게 입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복좋아

↳ 만약 예쁘지 않다면 전 반대!

리벤더

- ① 학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니 학년별로 생활복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봐야겠어.
- ② 생활복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고려하여 생활복을 채택한 주변 학교의 반응을 조사해서 제시해야겠어.
- ③ 구입 비용을 염려하는 학생들에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 구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어.
- ④ 교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복을 사복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음을 강조해야겠어.
- ⑤ 디자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 봐야겠어.

3. 다음 대화에서 '석기'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주석: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주신대.
 주석: 뭐라고? 너 얼마 전에 바꿨잖아. 그런데 또 산다고?
 석기: 뭐, 어때? 지난주에 A사에서 새 제품이 나왔거든. 광고를 보니까 멋지더라고.
 주석: 광고만 너무 믿지 말고,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도 따져 봐야지.
 석기: 아니, 물건 하나 사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난 그냥 살 거야.
 주석: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여러 제품을 평가해 놓은 사이트도 있더라. 참고해 봐. 정말이지 가격만 비싸고 성능이 엉망인 것도 많거든.
 석기: 아야, 그만 좀 해. 내가 살 것도 아니잖아.

- ① 상대가 인정할 경우에만 화제를 바꿔야 해.
- ② 상대의 충고를 성의 있게 듣는 자세가 필요해.
- ③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아.
- ④ 상대와 언쟁이 발생하면 대화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아.
- ⑤ 상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해.

[4~5] 다음은 텔레비전 인터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안녕하세요, 김현정 선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뷰는 처음이시라고요?
 선 수: 네. 지금 너무 떨려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행자: 저처럼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할 때마다 떨려서 심호흡을 크게 여러 번 하고 물을 마십니다. 한번 해 보세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선 수: 네. ㉠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신 분 말씀이니 믿고 해 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물을 마시고는) 정말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네요.
 진행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은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군요. 제가 앞자리에서 손수건 건넸 거 기억하시죠?
 선 수: 네. 물론 기억합니다. 그 손수건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행자: 많은 분들이 그때 심경이 어땠을지 궁금해 합니다.
 선 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다.)
 진행자: ㉡ 표정을 보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선 수: 제가 인생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을 무거운 심봉을 들어 울리며 보냈잖아요. 그 힘든 시간들이 눈앞을 스치더라고요.
 진행자: ㉢ (고개를 가웃거리며) 심봉이요? 심봉이라는 게?
 선 수: 아, 심봉은 역기 가운데 손잡이 부분인데요. 저희 역도 선수들은 역기를 들어 올린다는 말 대신 심봉을 들어 올린다고 하거든요.
 진행자: 네, 그렇군요.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선 수: 일단 하고 있는 공부를 끝내고 유소년 스포츠 재단을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 이미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신 걸 보니 평소 김 선수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겠네요. 김 선수가 선수 시절에 보여 준 열정과 능력이라면 그 일도 분명히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떨린다고 하셨는데 떨지 않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선 수: 방송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 아무래도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찻집이라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져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어요.

4. 위 인터뷰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에서 화자의 경험 및 전문성이 청자가 받아들이는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의 이해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구두 언어를 통해 화자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전달됨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인터뷰를 수업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내린 평가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A~E는 담화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들입니다. '진행자의 담화'를 각 항목에 따라 평가해 보세요.

['진행자의 담화' - 상호 작용 적절성 평가]

- A.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고려하였는가?
 -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을 제시하였다. ①
- B. 상황의 공식성을 고려하였는가?
 - 대중들이 시청하는 담화이므로 상대방의 직업에 관련된 질문만 하였다. ②
- C.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였는가?
 - 인터뷰 경험이 없는 상대방의 긴장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③
- D. 담화의 유형에 어울리는 말하기 태도를 고려하였는가?
 -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④
- E. 담화의 목적을 고려하였는가?
 - 시청자가 알고 싶어 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질문하였다. ⑤

6. 작문 상황을 바꾸어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문을 읽고, 작성할 글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룩말은 종종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다. 얼룩무늬가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룩말은 주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한다. 무리를 지어 다니면 얼룩말의 얼룩무늬들이 서로 연결되어 커다란 물체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 크기에 부담을 느낀 맹수들이 쉽게 얼룩말을 공격하지 못한다.

- < 조 건 > —
-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할 것.
 -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글의 목적을 달리 할 것.

- ① 얼룩말과 맹수들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면,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② 얼룩말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점을 활용하면, 친구들에게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권유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③ 얼룩말이 만들어낸 커다란 무늬가 맹수들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④ 얼룩말이 자신의 무늬 때문에 종종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점을 활용하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알리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⑤ 얼룩말의 연결된 무늬를 보고 맹수가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최강팀이 알보지 못하도록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축구위원들을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7~8] 다음은 글쓰기 과제와 그에 따른 학생 의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글쓰기 과제]

‘환경 문제’에 관한 협동 글쓰기

[과제 수행의 유의점]

1.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여 중심 내용을 정할 것.
2.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득적인 글을 쓸 것.
3.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게 서술할 것.

[학생 의견]

민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경의 중요성은 알지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가 부족해. 쓰레기 분리 배출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태도를 바꿔야만 해.

재희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없는 게 문제야. 법칙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처럼 강력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해.

7. ‘과제 수행의 유의점’을 바탕으로 한 협동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민수와 재희가 말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제시한다.
- ② 민수가 말한 개인적 측면과 재희가 말한 제도적 측면을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 ③ 민수와 재희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서술한다.
- ④ 재희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을 조사해서 제시한다.
- ⑤ 민수의 의견을 반영할 때는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자료로 제시하여 내용을 명료화한다.

8. <조건>에 맞게 글의 제목을 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 은유법을 사용할 것.
 -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포함할 것.

- ① 정책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뀝니다
- ② 생각은 철저하게, 처벌은 강력하게
- ③ 환경 사랑의 출발, 생활 속에서부터
- ④ 경제와 환경, 우리나라의 빛과 그림자
- ⑤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 태도와 제도의 변화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 다음 그림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 보자.



김홍도, 「타작도」

[과제 수행 기록]

오늘의 작문 과제는 그림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 보는 것이었다. 그림이 풍속화인 점을 고려하여 「타작도」에 드러난 조선 시대 농촌의 생활 모습에 대한 감상을 주제로 하여 글을 써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작품의 인상적인 부분들을 포착하여 각각에 대한 주관적 감상을 담은 글을 써 보았다.

[학생의 글]

김홍도의 「타작도」는 조선 시대 농촌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 조선 시대는 화가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먼저 그림 가운데에는 통나무를 사이에 두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그려져 있다. 이 개상을 둘러싸고 가을이 되어 ㉡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농부들이 신나 보인다. ㉢ 농부들 사이에 놓인 그 통나무는 '개상'이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에 곡식 낱알을 떨어내는 데 사용한 일종의 탈곡기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그림 왼쪽에서 곡식단을 개상에 힘껏 내리치려는 농부의 모습도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한편, 그림의 오른쪽 위에는 술병을 ㉣ 앞에서 두고서 비스듬히 기대누워 있는 양반이 그려져 있다. 일하는 농부들을 거들지 않고 누워 있는 양반이 알뜰게 보이기도 하고 게을러 보이기도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작가 김홍도는 한 장의 그림 속에 농촌의 어느 가을 하루를 포착하여 담아냄으로써 조선 시대 서로 다른 계층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다.
- ②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객관적 정보를 전달한다.
- ③ 대상의 특성과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다른 작품과 비교한다.
- ④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대상에서 받은 교훈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⑤ 대상의 몇 부분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감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② ㉡은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④ ㉣은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앞에'로 바꾼다.
- ⑤ ㉤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이 때문에'로 바꾼다.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며,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 '첨가'는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것이고,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것을 가리킨다.

- | | |
|------------|------------|
| ① 한여름[한너름] | ② 막히면[마키면] |
| ③ 물난리[물랄리] | ④ 벗나무[변나무] |
| ⑤ 넣어서[너어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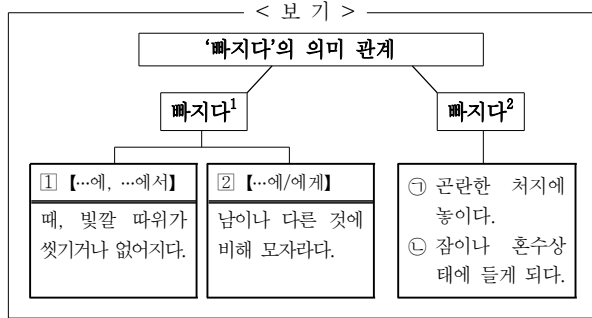
12. <보기>를 통해 '부사어'의 특징을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름달은 ㉠ 정말 아름답다. 보름달은 친한 ㉡ 친구처럼 다정하다. ㉢ 대체 누가 보름달을 만들었을까. 밝은 보름달이 ㉣ 점점 다가온다. 보름달을 ㉤ 친구에게 ㉥ 꼭 보여 주고 싶다.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부사어는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는군.
- ② ㉠과 ㉤을 보니, 부사어는 그 문장 내에서 문장 끝만 제외하면 어느 곳으로 옮겨도 자연스럽게.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부사어 중에는 생략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특정한 문장 성분을 수식하기도 하는군.
- ⑤ ㉠과 ㉤을 보니, 문장 안에서 부사어가 연달아 쓰이기도 하는군.

- 13 <보기>는 ‘빠지다’의 의미 관계를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빠지다¹’과 ‘빠지다²’는 동음이의어로군.
 ② ‘빠지다¹’ ①은 ‘빨아도 얼룩이 지지 않는다.’의 ‘지다’와 유사한 의미로군.
 ③ ‘빠지다¹’ ②의 용례로 ‘내 실력은 다른 경쟁자들에게 빠지지 않는다.’를 쓸 수 있군.
 ④ ‘빠지다²’ ③과 ㉠에는 ‘없음’이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군.
 ⑤ ‘빠지다²’를 ㉠의 의미로 쓸 경우, 반의어로는 ‘깨다’가 가능하겠군.

- 14 <보기>를 참고하여 사동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문장은 ‘주동문’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은 ‘사동문’이라고 해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붙이거나, ‘-게 하다’, ‘-시키다’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 예문을 보면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꾼 예]

ㄱ. 개가 밥을 먹다. → (철수가) 개에게 밥을 먹이다.
 ㄴ. 그가 집에 가다. → (영희가) 그를 집에 가게 하다.
 ㄷ. 동생이 학교에 입학하다. → (어머니께서) 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다.

- ① ㄱ~ㄷ 모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군.
 ② ㄱ~ㄷ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군.
 ③ ㄱ의 주동문은 ㄷ처럼 ‘-시키다’를 붙여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겠군.
 ④ ㄴ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집에 가는 주체가 달라지는군.
 ⑤ ㄴ의 주동문은 사동 접사를 붙여서 사동문으로 바꿀 수는 없겠군.

-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엄마가’의 ‘엄마’, ‘떡다’의 ‘떡-’과 같이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각각의 어근이 지닌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 일부 어근의 의미만 유지되는 경우, 제3의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

- ① 점심으로 오징어 덮밥을 먹었다.
 ② 늦봄의 따가운 햇볕이 내리쬘었다.
 ③ 동생이 돌다리를 건너 집으로 왔다.
 ④ 안개비가 연기가 깔리듯 자욱이 내리기 시작했다.
 ⑤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환경에 조작을 가하는 것을 ㉠ ‘조작적 조건화’라고 한다.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강화’가 주어지면 그 행동을 빈번히 하게 되고, ‘처벌’이 주어지면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리를 갖고 있다.

조작적 조건화에서 ‘강화’는 외적 자극을 주기 전의 반응자, 즉 반응을 하는 대상자의 행동이 미래에도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강화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정적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부적 강화이다. 정적 강화는 반응자가 어떤 행동을 한 직후 그가 좋아하는 것을 주어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사건을 말한다. 단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착한 일을 했을 경우, 그 아이에게 사탕을 줌으로써 착한 일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부적 강화는 반응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주어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숙제를 취소 또는 감소시켜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사탕을 주거나 숙제를 취소하는 등의 행위는 강화를 유도하는 자극에 해당하며, 이를 ‘강화물’이라고 한다. 강화물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음식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강화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강화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처벌’은 강화와 반대로, 외적 자극을 주기 전 반응자의 행동이 미래에도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을 낮추는 사건을 가리킨다. 처벌에도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존재한다. 정적 처벌은 반응자가 싫어하는 어떤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앞서 나타났던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은 후,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반응자가 선호하는 어떤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반응자의 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부적 처벌이다. 부적 처벌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어린이에게 용돈을 줄임으로써 말을 잘 듣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강화와 처벌은 외적 자극을 통해 반응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강화와 달리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압하기는 하지만 반응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려면 처벌만 사용하기보다 처벌을 강화와 결합하여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 강화와 처벌은 조작적 조건화의 기본 원리로서, 가정이나 학교, 회사, 스포츠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16.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작적 조건화는 외적 자극을 사용한다.
- ② 강화는 반응자의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③ 자극은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강화물이 된다.
- ④ 처벌은 반응자의 부정적 행동 가능성을 낮춘다.
- ⑤ 강화와 처벌을 결합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17. 위글에 나타난 개념과 <보기>의 ㄱ, 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 ㄱ. 사회 공헌 사업을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자,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이 증가했다.
- 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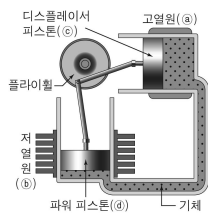
- | | 그 | ㄴ |
|---|-------|-------|
| ① | 부적 강화 | 정적 처벌 |
| ② | 정적 강화 | 부적 강화 |
| ③ | 정적 강화 | 정적 처벌 |
| ④ | 부적 강화 | 정적 강화 |
| ⑤ | 정적 처벌 | 부적 처벌 |

18.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신체적 조건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②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③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닐까?
- ④ 인간이 만든 강화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 ⑤ 인간의 개인적 선택을 맹신하는 것은 아닐까?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의 많은 기계들이 엔진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엔진은 보통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실린더와, 피스톤의 움직임을 회전력으로 바꾸어 주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켜 그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계에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진다. 그래서 컴퓨터나 우주 항공 장비와 같이 민감한 기계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기관이 스텔링 엔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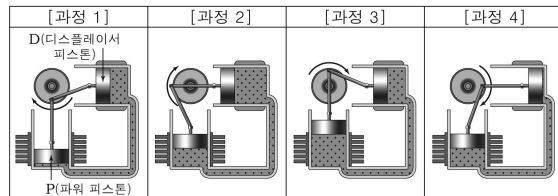


[그림 1]

스텔링 엔진도 기본적으로 피스톤이 있는 실린더와 피스톤의 움직임을 회전력으로 바꾸어주는 장치(플라이휠)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일반 엔진과는 달리 스텔링 엔진은 [그림 1]과 같이 2개의 실린더가 하나의 짝을 이룬다. 한쪽 실린더에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과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체를 뜨

겁게 가열할 수 있는 고열원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쪽 실린더에는 파워 피스톤과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체를 차갑게 냉각시킬 수 있는 저열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두 실린더는 기체가 이동할 수 있는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실린더 내부에 기체가 있다고 가정하자.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체를 가열하면, 기체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스톤은 밀려나간다. 반대로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체를 냉각시키면, 기체는 움직임이 약해져 부피가 줄어든다. 그러면 피스톤은 밀려들어 오게 된다. ①스텔링 엔진은 기본적으로 기체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으면 부피가 변한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림 2]

스텔링 엔진의 작동은 [그림 2]와 같이 4개의 과정을 거친다. P(파워 피스톤)가 실린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P에 의해 밀린 기체가 D(디스플레이서 피스톤)가 있는 실린더 쪽으로 모이게 된다. 그러면 모인 기체에 의해 D는 최대한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고열원으로 기체가 가열된다.([과정 1]) 그러면 D 쪽 실린더에 있는 기체는 팽창하게 된다. 그런데 D는 더 이상 왼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팽창된 기체는 연결된 관을 통해 P가 있는 실린더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이동된 기체에 의해 P가 위로 올라가면서 플라이휠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과정 2]) 플라이휠이 회전하면서 여기에 연결된 장치로 D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D 쪽 실린더에 있는 기체는 밀려서 P의 실린더 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 저열원으로 기체가 냉각된다.([과정 3]) 냉각되면 기체가 수축되면서 P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과정 4]) 위의 과정을 한 번 마치면 플라이휠은 한 바퀴 회전한다. 이것을 반복하면 플라이휠이 계속 돌아 기계가 작동할 수 있게 된다.

[A]

스텔링 엔진은 1816년 스텔링이 발명하였으나,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에 비해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 받았다. 하지만 ①스텔링 엔진에 적합한 기체가 발견되고, 효율이 좋은 열교환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9. 윗글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스텔링 엔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② 스텔링 엔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 ③ 스텔링 엔진은 누구에 의해 발명되었는가?
- ④ 스텔링 엔진은 어떤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가?
- ⑤ 스텔링 엔진과 가솔린 엔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20. [A]를 바탕으로 [그림 1]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 의해 가열된 기체는 d 쪽 실린더로 이동한다.
- ② a는 c 쪽 실린더에 있는 기체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d가 한 번 왕복하면 플라이휠은 한 번 회전하게 된다.
- ④ d가 위로 올라가면 플라이휠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 ⑤ d 쪽 실린더에 있는 기체가 냉각되면서 d를 위로 밀어 올린다.

21. ①을 바탕으로 ①의 특징을 추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높은 온도에서도 기체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부피의 변화가 클 것이다.
- ③ 외부의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온도에 상관없이 활발하게 운동할 것이다.
- ⑤ 가열은 어렵지만 냉각은 쉽게 될 것이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에는 일반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신문과 같은 전통적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었고, 전통적 언론은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강한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신문에서 물가 상승 문제를 반복해서 보도하면, 일반 시민들은 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여론도 활성화된다. 이처럼 전통적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의제설정’ 기능이라고 한다.

하지만 막강한 정보원으로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전통적 언론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 매체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이하 SNS)가 등장한 이후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전통적 언론에서 뒤늦게 그 문제에 대해 보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 시민이 의제설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역의제설정’ 현상이라고 한다.

전통적 언론은 사회 문제 중에서 일부만을 골라서 의제로 설정한다. 역의제설정 현상은 전통적 언론에 의해 주도되는 의제설정의 치우침, 즉 편향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SNS를 통해 전통적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에 대해 논의거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 하지만 역의제설정 현상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SNS에서는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못한 내용을 토대로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SNS를 통해 형성되는 여론은 왜곡되거나 변형될 위험이 있다. SNS에서 때로 괴담과 같은 비합리적인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간주되고 널리 확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SNS의 등장으로 모든 사람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SNS 이용자는 정보의 수용자로서 선별력, 판단력을 갖추고 정보를 접해야 하며, 정보의 제공자로서 여론 형성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23.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한 연구에서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단지 7.5%의 사람이 SNS 전체 정보의 75%를 생성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22.5%의 사람은 한 번도 내용을 생성하지 않고 전달받은 정보를 보기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SNS를 통해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SNS가 점차 사회적 의제를 독점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 ② SNS에서는 검증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SNS에서 사회적 문제를 선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SNS에서 소수가 대부분의 정보를 생성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SNS에서도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 ④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SNS 이용자의 불만이 커질 것이 예상된다.
- ⑤ SNS의 이용자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전통적 언론의 상업적 활동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22. 윗글에 표제와 부제를 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NS에 기반한 여론 형성
- ‘역의제설정’ 현상을 중심으로
- ② 전통적 언론과 SNS의 한계
- ‘역의제설정’의 부작용을 중심으로
- ③ 전통적 언론에서 SNS로의 변화
- ‘역의제설정’ 현상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 ④ SNS와 전통적 언론의 상호 작용
- SNS를 이용한 정보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 ⑤ 전통적 언론이 SNS에 미치는 영향
- 전통적 언론에 의한 ‘의제설정’ 과정을 중심으로

24. [A]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여론의 질을 높이는군.
- ② 여론은 전통적 언론에 의해 검증되어야 형성되는군.
- ③ 주목받는 의제라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겠군.
- ④ 최근의 여론은 이전과는 달리 비밀스럽게 형성되는군.
- ⑤ 역의제설정 현상은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할 수 있겠군.

28. ㉠와 바꿔 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동(可動)하기 ② 약동(躍動)하기
 ③ 이동(移動)하기 ④ 작동(作動)하기
 ⑤ 진동(振動)하기

[29~30] 다음은 학생 기자의 연담 기사문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 씨의 글]

저는 글을 쓰기 전에 100권의 책과 10권의 공책을 삽니다. 다양한 지식을 얻고 풍부한 생각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는 공책에 책의 내용과 필자의 생각 등에 대해 정리합니다. 저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감상과 평가도 기록합니다. 필자의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나만의 독서록 만들기’라 일컫습니다.

작가 ○○○ 씨는 독서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우리 학생 기자단은 작가 ○○○ 씨를 만나 독서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 글을 읽어 보니 작가님의 책 사랑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께 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작가: 책은 저의 오래된 친구죠. 저에게 꿈을 이루게 해 준 고마운 존재이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글을 어떻게 쓰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요. 소설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주변에는 제 질문에 답을 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책 읽기에 열중했죠. 제가 알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책 안에 있더라고요. 글 쓰는 방법도 익히게 됐죠. 책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학생: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책을 읽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작가: 자신의 독서 태도를 돌아켜 보세요. 저를 포함하여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글자를 읽는 데에만 열중하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 필자가 감춰둔 보물을 찾고 필자와 이야기를 나누죠. 제가 강조한 독서록 만들기는 수많은 보물과 대화들을 담아 놓는 방법 중 하나이죠.

학생: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 ㉠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지 알겠어요.

29. 독서에 대한 작가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쉬운 책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② 독자가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③ 독자가 필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행위이다.
 ④ 독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 준다.

30. ㉡의 의미를 드러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 방법에 집중해서 책을 읽어야지.”
 ② “필자가 숨겨둔 의도를 파악해 봐야지.”
 ③ “유명한 사람이 추천해 주는 책을 읽어야지.”
 ④ “실용적인 내용의 책인지 확인하고 읽어야지.”
 ⑤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껍테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테기는 가라.

껍테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테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테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테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신동엽, 「껍테기는 가라」 —

* 4월 :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

* 동학년 :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1894년.

* 초례청 : 혼인 예식을 치르는 곳.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나타내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⑤ 색채어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화자의 단호한 어조가 나타나 있다.
- ② ㉡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의지를 제차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에서 공간적 의미가 시간적 의미로 전환되고 있다.
- ⑤ ㉣은 시적 허용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동엽 시인은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인 대지에서 우리 민족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당시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했고 남과 북은 이념 대립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시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와 봉건에 저항했던 동학 혁명이나 불의에 저항했던 4월 혁명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① ‘껍데기’는 현실의 문제를 유발하는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중립의 초레칭’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모순과 부조리가 담겨 있는 현실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 ③ ‘맞잘할지니’는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화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
- ④ ‘흙 가슴’은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⑤ ‘쇠불이’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부정적인 대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전 줄거리] 이생은 최 여인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시골로 쫓아 버리자, 최 여인은 상사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된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모가 두 사람의 혼례를 성사시킨다. 이후 이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지만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최 여인은 흥건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난이 평정된 후 최 여인은 이생 앞에 나타난다.

그 뒤 이생도 역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여인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자 피난을 나가 살던 노복들도 역시 제 발로 찾아왔다. 이생은 그 이후로는 인간사에 게을러졌다. 그래서 비록 ㉠친척과 빈객의 길흉사에 하례하고 조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최 여인의 화답을 구하거나 최 여인이 지은 시에 화답하면서, 금슬이 좋아 화락하게 지냈다. 그렇게 서너 해가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하였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습니다만, 세상일은 어긋나기만 하네요.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오다니.”

그렇게 말하고는 마침내 흑흑 울음을 터뜨렸다. 이생이 놀라 물었다.

“어찌 이리요?”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천체에서 저와 그대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또 아무 죄장(罪障)*이 없음을 살피시어, 환체(幻體)*를 빌려 주어, 그대와 함께 잠시 시름으로 애간장을 끓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승 사람을 현혹할 수는 없지요.”

최 여인은 몸종을 시켜 술을 올리게 하였다. 그러고는 옥루춘 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전장의 창과 방패가 시야에 가득 어지러운 곳
옥구를 부서지고 꽃잎은 날며 원앙도 짝 잃었네.
낭자하게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은 하소연할 사람 없어라.

[A]

고당에 무산 선녀 한 번 내려온 뒤로
깨졌던 구리 거울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작별하면 둘 다 아득하여
천상과 인간 사이에 소식이 막히리라.

“내 차라리 그대와 함께 황천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하게 홀로 여생을 보전하겠소? 지난번 난리가 있을 뒤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었을 때, 만일 낭자가 아니었다더라면 누가 매장할 수 있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낭자의 천성이 효순하고 착하며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이었소. 그러기에 너무도 감격하였소만, 다른 한편으로 스스

로 부끄러움을 어찌 이길 수 있었겠소? 부디 남자는 인간 세상에 남아서 백 년 뒤에 나와 함께 흠이 뒀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하였다.

“남군의 수명은 아직 여러 기(紀)*가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져 저승 세계의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면, 비단 저에게만 죄과가 미칠 뿐 아니라 아울러 그대에게도 누(累)가 미칠 것이요, 다만 저의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 유해를 바람과 햇볕에 그냥 드러나 있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여인은 말하였다.

“남군님, 부디 몸조심 하세요.”

말이 끝나자 여인은 점점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종적도 없게 되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묘소 곁에 묻었다. 장례를 지낸 뒤에도 ㉢ 이생은 여인을 추모하고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애처로워하고 슬퍼하여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 죄장: 불교에서 수행이나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죄악을 이르는 말.

* 환제: 불교에서 덧없는 인간의 몸뚱이를 이르는 말.

* 기: 해, 세월.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③ 긴박한 분위기를 갖은 장면의 전환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여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입체적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35. [A]의 기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인물의 심리 상태를 보여 줌.
 ㄴ. 사건이 전개될 방향을 암시함.
 ㄷ.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함.
 ㄹ. 경험한 사건이 주는 교훈을 제시함.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6. ㉣를 들은 이생의 심정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게 웬 청천벽력(靑天霹靂)인가?
- ② 아내에게 결초보은(結草報恩)해야겠다.
- ③ 모든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아니겠어?
- ④ 아내 입장에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겠군.
- ⑤ 이 상황에서는 비분강개(悲憤慷慨)할 수밖에 없겠네.

3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최 여인을 다시 만난 후 이생이 세상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 이생과 최 여인 사이에 이미 두 번의 이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최 여인이 이생과 계속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④ ㉣: 부모의 장례를 재차 부탁하는 것을 통해 최 여인의 효심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 최 여인에 대한 이생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① 떠집 차가운 잠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오니
벽 가운데 걸려 있는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는가.
산을 오르내리며 강가를 헤매며 방향을 했더니
그 사이에 힘이 지쳐서 **뚝잠**을 잠깐 드니
그 정성이 지극하여 **꿈속**에서 임을 보니
옥과 같이 곱던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구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말하려고 하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을 어찌하겠으며
정회도 못 다 풀어 목마져 메이니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하여 다 깨었던가.
아, 헛된 일로다. 이 임은 어디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르고 있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
임 계신 **창 안**을 환하게 비춰 드리리라.

- 정철, 「속미인곡」 -

(나)

①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 임 오신 날 밤이어진 **굽이굽이** 퍼리라

- 황진이 -

38.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물가'를 헤매다 안타까워하고 있어. 이것은 그리운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일 거야.
- ② (가)의 화자는 '뚝잠'에서 깨어난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 이것은 '꿈속'에서는 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지는 달'이 되어 '창 안'을 비추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 이것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 ④ (나)의 화자는 '밤'을 '굽이굽이' 퍼졌다고 하고 있어. 이것은 임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 ⑤ (나)의 화자는 '춘풍 이불'을 정성껏 만들고 있어. 이것은 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39. <조건>에 따라 시행을 창작하는 학습 활동을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조 건 >

- ㉠에 드러난 화자의 처지를 명확히 밝힐 것.
- ㉡에 담긴 발상 및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침실의 환한 등불 아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 ② 괴롭지만 행복한 침실에서 등불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 ③ 한밤중에 혼자만 있는 쓸쓸한 침실에서 슬픔을 포개어 쌓았다.
- ④ 차가운 잠자리와 침실 벽의 등불 사이가 하늘과 땅의 거리였다.
- ⑤ 아늑한 침실 바닥에 누워 즐겁게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 해쳤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 속에서 이민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다.
일 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 삼면으로 눈을 옮겼다.

북한(北韓) 소련 유학생(蘇聯留學生) 서독(西獨)으로 탈출(脫出).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원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 있다.

그는 코허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어차 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역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던 말인가.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해다.

이민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애, 너 그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식아, 별수없다. 왜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야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 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아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이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낯세로야 그걸 못 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민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구 별것이겠니,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두 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텐코프 소좌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거저 표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재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쩔라구.....”

“가만있어요. ㉠ 호랑이두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A] “그래도 저 어린것을 어떻게 노서아까지 보낸단 말이오.”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들을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 가 건달라구.”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괜한 소리, 재가 소련 바람을 쏘이구 와야 내게 허튼 소리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 할 거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살아 봅시다.”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시키고 그는 아들 유학을 관철하였다.

‘흥, 혁명 유가족두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구 보자.....’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그 다음 해에 사변이 터졌다.

잘 있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왔지만 동란 후 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대로였다.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치키리’*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 내려갔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 자식은 무얼 꾸물꾸물하느라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 담.....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의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명추같이.....’

그는 신문을 포개어 되는 대로 말아 쥐었다.

‘개천에서 용마가 난다는데 이걸 제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그는 혀를 찹찹 갈졌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소식이 가서 체계도 무언중의 압력이 퍼져갈 터인데.....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그는 자동차에서 내리자 건 가래침을 내뿔었다.

‘독또오루(닥터) 리,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스텐코프의 목소리가 고막에 와 부딪는 것만 같았다.

— 전광용, 「꺼삐딴 리」—

* 다치키리: 신문의 조각 면을 가리키는 일본말.

* 꺼삐딴: ‘우두머리 또는 최고’라는 의미의 러시아어 ‘까삐딴’이 와전되어 표기된 말.

40.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3점]

- ① 이인국의 아내가 죽음.
- ② 이인국이 동란 후 월남함.
- ③ 이인국의 아들이 의대에 입학함.
- ④ 이인국의 아들이 소련으로 유학을 감.
- ⑤ 이인국이 자동차 안에서 신문을 읽음.

41.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꺼삐딴 리」는 서술의 초점이 극명하게 주인공에게 맞춰진 인물 소설이에요. 서술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인국이라는 인물의 부정적 속성을 형상화하면서 이를 통해 독자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성찰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서술자가 [A]를 통해 형상화하려는 부정적 속성은 무엇일까요?

- ① 불안정하고 예민한 정서
- ②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말투
- ③ 운명에 순응하는 체념적인 태도
- ④ 과거에 집착하는 고루한 가치관
- ⑤ 자기 중심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성격

42.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동일한 대상을 깨우치고 있다.
- ③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음그러면 저 뱃섬은 오늘 저녁나절까지 신작로 돌다 리께에 있는 논임자 곳간으로 저 내이다 두게.

국서 네.

사음 그러면 한 번 더 일러두고 갈 테니 잘 명심해 두게! 작년치 떨어진 게 두 섬 여섯 말. 재작년치 떨어진 게 석 섬 두 말. 도합 닷 섬 여섯 말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와서 갇어진 것을 털면 꼭 녀 섬 일곱 말이 떨어져 있단 말야!

말똥이 (옆에서 듣고 섰다가 통명스럽게) 그걸 어쩌야 한단 말요?

사음 금명간에 다 해다 갇으란 말야! 이놈이 왜 어른 말하는데 쌍지팽이를 쥐고 나서? 원 버르장머리 없게?국서 잘 듣게. 대관절 이번 봄부터 내가 몇 번을 타이른 줄 알아? 명년부터서는 새로 농지령이란 게 실시된다고.그렇게 되면 실상 작인 들은 살기가 좀 나아져. 그렇지만 그 대신 이번 추수까지는 여태 묵은 것은 다 맡겨 놔야지. 그렇잖으면 내년에 가서 피차에 귀찮스럽게 된단 말야. 도지*가 묵었느니, 떨어졌느니 허구 이걸 법정에 내걸더라도 말썽스럽게 되거든!

[A]

국서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쭙 게 아십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사음 지금 와서 그런 소릴 해두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만일 이번에 목은 것을 못 갖다 갔으면 좋지 못한 일이 [B]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정없이 딱 잘라서 최후 결판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 잘 알아 생각해!

말뚱이 아니 뼈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 그러구 그게 무슨 말유? 올해가 풍년이래두 우리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았나 봐요! 막 뒤져 봐요!

국서이놈 말뚱아!

사음 이 망할 자식 보게. 늙은 사람 앞에 막 삿대질을 허구 이놈이 덤비지! 애티 고약한 놈 같으니! (지팡이로 때린다.)

말뚱이 (악을 쓰고)아버지 좀 봐요. 노.....농지령이란 건 뭐야요? 그저 사람을 골릴려구! 최후 결판을 하면 어쩔 테야요? 어디 할 대루 해봐요! 응!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이지.

국서 (말리다가 못해 말뚱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놈 버릇없이!

사음 이런 분할 일이 있나! 그럼 못할 거라구! 두고 봐! 기둥이라두 뼈에 가구 술이라두 떼어갈 테니까..... 흥 저놈의 소는 못 몰고 갈 줄 아나?

국서 소를요? 아닙니다. 저 소는 저래 배두 도 장관 나오리 한테서 일등상 받은.

사음 일등상이 뭐야! 도 장관은 다 뭐야!

처에그 살려주십시오. 그저 저놈이 미련스럽구 철이 덜 나서 그렇습네다. 네? 제발.

사음 봐요! 봐! 불들지 말우. 참 사람 분해 죽을 일이야.....

애원하는 국서 부부를 뿌리치고 사음은 나가 버린다. 말뚱이는 헛간 문 곁에 기대섰다.

국서 (말뚱이를 보고) 액기 빌어먹을!

말뚱이 (슬슬 피하며) 내가 뭘 잘못했수? 백주에 그래. (퇴장해 버린다.)

처 이걸 어떡하나? 마름을 저렇게 건드려 났으니 인제 큰 일났지. 속절없이 논은 떼이고 말았구려.

국서 그놈의 자식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또 샀지.

이웃 사람 영실이 조금 전부터 행길에서 이 구경을 하다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영실 헛헛헛...... 문진이가 왔으면 바로 도쳐 춘풍이란 소리를 한 마디 내걸칠 때문이로군요. 국서, 걱정 마요. 나두 금방 구경을 했지만 이런 싸움이 이 동리에서도 하루에 몇 차례씩 있는 걸. 그야말로 될 대로 되겠지. 응?그리고 지금 나는 읍내에 갔다 오는데 자네 아우가 읍에서 자네더러 좀 와 달라구 그랬수.

국서 나를?

영실 아마 무슨 돈 꾸어 쓰는 일 때문에 그러나 봐. 나는 바빠서 가요. (그만 퇴장)

국서 또 무슨 까다로운 일이 생겼나? 웬일이야? (방으로 들어간다.)

처 읍에 가 보시려우 지금? (방 안을 들여다보고) 부대를 때에 뭘 좀 사오세요. 마름한테 보내게. 암만 생각 해두 걱정이어요. 금방 그 양반이 그렇게 노허구 가서! 코 아래 진상이라두 해 봐야 해요. 그래야 좀 맘을 놓지.

- 유치진, 「소」 -

* 사음: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마름.
*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그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43. 등장인물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사음'은 여러 인물과 대립하며 극적 반전을 유도하고 있다.
ㄴ. '말뚱이'는 '사음'을 자극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ㄷ. '국서'는 '말뚱이'를 제지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ㄹ. '처'는 '국서'에게 반발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4.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척하며 회유하고 있다.
② 의문점을 제기하며 문제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③ 장차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사회적 연륜을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다.
⑤ 법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45. 윗글의 내용 중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희곡에서 어떤 사건은 무대에서 실제 장면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인물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① 말뚱이가 국서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것.
② 국서 아우가 읍에서 영실을 만나 부탁하는 것.
③ 국서가 작년, 재작년에 도지의 일부만 치르는 것.
④ 사음이 봄에 국서에게 목은 도지를 갚으라고 말하는 것.
⑤ 동리 사람들이 도지를 치르는 일을 두고 사음과 다투는 것.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